

오늘부터 프로야구 후반전 'START'

두산·NC 양강 구도 속 하위권 팀들 경쟁 치열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후반기에 돌입한다. 개인 기록, 팀 순위 할 것 없이 팽팽한 승부가 기다린다.

일단 후반기는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양강 구도 속에 중·하위권의 치열한 가을야구 싸움이 예상된다.

리그 5위 롯데 자이언츠부터 최하위 kt 위즈의 차이는 불과 5.5경기차다.

여기에 중하위권 전력의 들쭉날쭉해 예측이 불가능하다.

후반기 첫 3연전부터 5위(롯데 자이언츠)와 6위(KIA 타이거즈)간 한판 전쟁을 치른다.

두 팀의 경기차는 1경기에 불과하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5강 싸움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3연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은 5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롯데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전반기를 마친 반면 KIA는 SK 와이번스와의 3연전에서 1승2패를 당한 뒤 전반기를 끝냈다.

다만 두 팀의 전반기 상대전적에서는 KIA가 7승2패로 크게 앞서있다.

KIA는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임창용이 기대만큼 해주지 못해 뒷문이 불안하다. 롯데는 전반기 팀 평균자책점 5.74로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치며 전반기 내내 마운드 불안이 펼쳐내지 못했다.

새 외국인 타자 저스틴 맥스웰도 미지수다. 5강 후보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 팀의 경기 결과는 7위로 치고 올라온 한화 이글스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5~10일 5경기에서 4승1무



프로야구 전반기 최종전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를 수확하며 상승세를 탔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도 LG 트윈스에 워닝시리즈를 거두며 7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볼펜진의 과부하가 최고 약점으로 꼽히는 한화는 최하위 kt 위즈와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전반기 막판 마운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8위까지 밀려난 채 전반기를 마감한 LG도 5강 후보다.

LG의 후반기 시작은 험난하다. 상대는 3위를 달리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다. 그나마 전반기 넥센과 9차례 맞대결에서 5승4패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 위안이다.

4위에 올라 있는 SK는 롯데에 4경기차로 앞서고 있어 조금 여유가 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5~10위 팀들이 상승세를 타다면 추격

은 충분히 가능하다. NC와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출발하는 SK는 에이스 김광현이 왼팔 골절근 미세 손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1선발 중책을 맡은 메릴 켈리의 어깨가 무겁다.

게다가 SK는 올해 전반기에 NC와 상대 전적 3승5패로 열세다.

전반기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6월 10~12일 경기에서도 SK는 3연전을 모두 NC에 내줬다.

1위 두산과 2위 NC는 이번이 없는 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적이다. 두 팀의 후반기는 '선두 수성'과 '선두 추격'이 화두다.

두산과 NC의 경기차가 4.5경기인 상태에서 전반기가 끝났다.

다만 NC의 경우 3위 넥센이 5연승의 상

승세를 타며 전반기를 마무리해 3.5경기 차로 쫓긴 상태라 2위를 장담할 수 없다.

선두 두산은 9위에 머물러있는 삼성과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조용준 해설위원은 "올 시즌 5강 싸움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다. SK와 롯데가 전반기 막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A 역시 임창용이 투입되면서 마운드로 안정감이 더해졌고 김호영, 브렛 필 등 타선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안치용 해설위원은 "후반기는 중위권 팀들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부상으로 빠진 에이스 김광현이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5강 진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금메달 꼭 목에 걸겠다"

레슬링 국가대표팀 올림픽 출사표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비유했다. 대표팀은 1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리우 올림픽 미디어데이를 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금메달을 꼭 목에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 레슬링은 1976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안정모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2012 런던 올림픽까지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한 효자 종목이다.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금메달을 사냥해 4회 연속 하계올림픽 종합순위 '톱10' 진입을 노리는 한국에 있어 레슬링은 기대가 큰 종목임수밖에 없다.

김영남 대한레슬링협회장은 "레슬링은 한 때 '빠테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며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레슬링은 모두 5명이 출전한다. 그레코로만형에서는 75kg급 김현우(28·삼성생명), 66kg급 류한수(28·삼성생명), 59kg급 이정백(30·삼성생명)이 출전하고, 자유형에선 57kg급 윤준식(25·삼성생명)과 86kg급 김관욱(26·광주남구청)이 나선다.

안찬봉 그레코로만형 감독은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며 "선수들이 체력과 정신력 기술이 상위일수록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훈련했다. 꼭 금메달을 따오겠다"고 밝혔다.

박장수 자유형 감독은 "선수들이 지난 4년간 흘린 땀방울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달을 향해 하루하루 전진해 왔고, 모두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훈련을 잘 마치고 리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김민근기자

무주 WTF 성공 개최 기원 세계태권도인 한마당 성료

태권무·릴레이 송파격파 퍼포먼스·육군 사령부 축하공연 등 벌여 도민들 눈길 사로잡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회 성공기원 세계태권도인 한마당' 행사가 18일 전북도청 광장 일원에서 열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대회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도지사, 이연택 대회유치위원장을 포함한 정·관계와 태권도계의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세계 34개국에서 몰려온 태권도인과 전북도민 등 2017여명이 '성공기원 퍼포먼스'에 동참해 성공개최 의지를 보였다. 행사는 야외에서 거행된 성공기원퍼포먼스 및 기념식과 도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대회준비사항 보고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특히 품새 태권무, 릴레이 송파격파, 대

형현수파 파도타기응원 등으로 펼쳐진 성공기원퍼포먼스와 육군 제1야전 사령부 태권도 시범단 축하공연, 홍보탑 제막식으로 구성된 기념식은 행사 참석한 도민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도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고회에는 국회의원, 시장 및 군수, 도의원, 조직위원 등 주요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준비사항 PT보고와 의견수렴,

만찬을 진행했다.

한편,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권도인의 성지 이미지 구축과 사상 세계최대규모의 태권도 국제 이벤트로 종주국의 위상 강화,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 브랜드 창출 등을 비전으로 삼고 각 분야의 준비사항을 치밀하게 점검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민근기자

국토부-조직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위한 협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국토부는 19일 조직위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청량리)에서 강원도(진부)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중앙선 등 기존 철도 고속화, 영동고속도로 확장·개선 사업을 제때 완공할 방침이다.

또 대회 기간 중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올림픽 전용도로 운영을 지원하는 등 특별교통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동계올림픽과 함께 개최되는 패럴림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상버스, 장애인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선수와 관람객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국에서 평창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